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그 안보적 함의”

“China’s Aging Popu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China’s Security”

» **저자** : Jennifer Bouey 외

» **일자** : 2026년 3월 12일

» **출처** : 랜드연구소(RAND)

https://www.rand.org/pubs/research_briefs/RBA3372-1.html



- ❖ 이 연구는 중국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중국은 2022년 대약진 운동 시기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했으며,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가운데 하나다. 현재 약 14억 명 수준인 인구는 2050년까지 약 2억 5천만 명 감소할 수 있다. 동시에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중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 ❖ 특히 노동 가능 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한 명을 부양하는 노동 연령 인구가 두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금과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이 아직 고소득 국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다.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유해진 뒤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소득 수준에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인구 배당 효과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는 향후 고령화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 ❖ 출산율 감소는 단순히 한 자녀 정책의 결과만은 아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정부는 두 자녀 정책과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하며 출산을 장려했지만 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다.
- ❖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중국의 연령 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인구 고령화는 중국 안보에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군사 안보다. 인구 감소는 군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국방 예산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술 발전과 자동화, 로봇화가 일부 인력 부족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군사적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 둘째는 구조적 안보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연금과 의료 같은 사회복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경제 활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와 노동시장 참여 감소도 경제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 셋째는 체제 안보다. 고령 인구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정치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사회복지 개선과 경제 기회 제공에 실패한다면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은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지만 국제 사례를 보면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보육 지원, 주거 정책, 교육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높은 양육 비용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이민 확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매우 크고 이민 정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이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 ❖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도 고려된다. 도시화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호적제도는 내부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활용 역시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면 노동력 부족을 일부 보완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도 기술 중심 전력 구조가 인력 감소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 ❖ 또 하나의 정책은 정년 연장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년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이를 단계적으로 높이기 시작했다. 정년 연장은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저항이 클 가능성도 있다.
- ❖ 결국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고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시점이 경제적 성숙 단계에 미처 도달하기 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중국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